



2001년
7월 15일
제 35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발행·인쇄인 : 임택창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춘천지역 목사·장로 연합세미나 전국 모범 - 감사 이용남 목사, 동부장로교회 새정선에서 일일세미나 -

김주환 춘천기독교연합회(총목회)는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춘천명동 변화가게 위치한 동부장로교회 본당에서 시골장로교의 이용남 목사를 강사로 초청, 2001년도 제2회 목사·장로 연합 세미나를 열었다. 개회예배에 이어 총회의 재정보고와 사업계획을 협의했으며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 시간을 가진 후 동부장로교회 마천한 반찬으로 중식을 했다.

임성원 목사(동부장로교회 담임)는 개회예배에서 "지혜를 넓히라"(잠22:28-29)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전조들이 성직에 놓은 '지혜(地界)'를 교회에 연합하여 넓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초청 강사 이용남 목사는 "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리더십"에 대하여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의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수많은 지도력을 세가지로 요약, 설명하였다. ①전제적 지도자(권위적, 군림, 자기주장형으로 추진력이 있

으나 문제해결의 위험) ②방식적 지도자(감독적, 무책임, 자기주장의존형으로 정제 무력) ③민주적 지도자(협동, 공유, 협력, 헌신, 적극적인 행동, 목표달성 용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어야 하며 남을 섬기는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존스토프'의 말을 인용했다. 위대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막10:43-44)이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 지도력은 인격 안에 있고 리더십은 그의 인품이다. 목사, 장로 중에는 나는 이만 칭한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도를 많이 하고(영성훈련)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함을 강조했다.

'월리암 바클러비'(신약주석권위)의 말을 인용하여 위대한 지도자는 목적 달성이기 열정과 인내를 가져야 하며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의 놀이터라고 했다. 이상적인 지도자의 요건으로서 종교적인 헌신(깊고 지속적인)으로 매일의

생활속에서 신성한 지도력을 가져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신실성(정직)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위기가 오면 거짓되기 쉬우므로 어리석음 정도를 정직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거짓되기 때문이다. 모세와 같이 걸음들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소유하고 앞을 보는 비전을 가지고 지도자는 보다 나은 세계로 옮기는

것이다. 목사, 장로 간 불편한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상대방에 대한 표준을 하나 남겨 둘다면 해설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박수를 받았다. 동 연합회는 이용남 목사의 강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제작하여 3백여 회원 교회에 모두 전달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 중에 제3회 연합세미나(석사강리교회)를 끝으로 금년 계획을 마무리 한다.

이날 모임이 더욱 뜻깊고 아름다웠던 점은 96년 전국 최초로 춘천 HolyClub을 시작하였고 여러 도시를 돌면서 수많은 클럽을 창립한 장로들과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가들이 동참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춘천에서 청주로 직장을 옮긴 진용태 장로에 의해 청춘(靑春)사업으로 이어졌고 또한 양인영 장로에 의해 대청춘(大靑春)사업으로 성사와 운동이 퍼져 나갔으며 이제 전국 도시의 번영을 꾀하는 거대한 사

업이 되고 있다. 춘천 홀리클럽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대표인 목사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성교 권익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대표기도 김광수 감독(신성장리교회), 축도 임택창 목사(성서화문본부), 김주환 목사(기독교연합회), 이원호 목사(소양성교회), 제회기도 조충환 목사(성서본부사무총장), 특별기도 지용환목사(은혜장로교회), 박상철 목사(제일성교회), 한금기 주년 감사예배와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모임이 더욱 뜻깊고 아름다웠던 점은 96년 전국 최초로 춘천 HolyClub을 시작하였고 여러 도시를 돌면서 수많은 클럽을 창립한 장로들과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가들이 동참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춘천에서 청주로 직장을 옮긴 진용태 장로에 의해 청춘(靑春)사업으로 이어졌고 또한 양인영 장로에 의해 대청춘(大靑春)사업으로 성사와 운동이 퍼져 나갔으며 이제 전국 도시의 번영을 꾀하는 거대한 사

업이 되고 있다. 춘천 홀리클럽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대표인 목사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성교 권익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대표기도 김광수 감독(신성장리교회), 축도 임택창 목사(성서화문본부), 김주환 목사(기독교연합회), 이원호 목사(소양성교회), 제회기도 조충환 목사(성서본부사무총장), 특별기도 지용환목사(은혜장로교회), 박상철 목사(제일성교회), 한금기 주년 감사예배와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모임이 더욱 뜻깊고 아름다웠던 점은 96년 전국 최초로 춘천 HolyClub을 시작하였고 여러 도시를 돌면서 수많은 클럽을 창립한 장로들과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가들이 동참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땅에 HOLY를 심고 물 주는 자들의 함성 - 5년동안 각 도시에서 홀리열풍 일으킨 전도자들의 결집 -



춘천 홀리클럽 회장 허친 장로(도의회 의원)는 지난 6월 16일 오후 6시부터 9시 까지 전국 회원들과 함께 춘천중앙감리교회 100주년 기념 새성전에서 창립 5주년 감사예배와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모임이 더욱 뜻깊고 아름다웠던 점은 96년 전국 최초로 춘천 HolyClub을 시작하였고 여러 도시를 돌면서 수많은 클럽을 창립한 장로들과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가들이 동참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춘천에서 청주로 직장을 옮긴 진용태 장로에 의해 청춘(靑春)사업으로 이어졌고 또한 양인영 장로에 의해 대청춘(大靑春)사업으로 성사와 운동이 퍼져 나갔으며 이제 전국 도시의 번영을 꾀하는 거대한 사

업이 되고 있다. 춘천 홀리클럽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대표인 목사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성교 권익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대표기도 김광수 감독(신성장리교회), 축도 임택창 목사(성서화문본부), 김주환 목사(기독교연합회), 이원호 목사(소양성교회), 제회기도 조충환 목사(성서본부사무총장), 특별기도 지용환목사(은혜장로교회), 박상철 목사(제일성교회), 한금기 주년 감사예배와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모임이 더욱 뜻깊고 아름다웠던 점은 96년 전국 최초로 춘천 HolyClub을 시작하였고 여러 도시를 돌면서 수많은 클럽을 창립한 장로들과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가들이 동참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춘천 성시화 도시전도대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가 후원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임택창목사)가 주최하는 춘천성시화 도시전도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7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간 석사감리교회를 비롯한 10개 교회에 대학생전도요원 159명을 파송하여 활발한 전도활동을 통해 교회의 일차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전도사역을 위해 7월 2일 춘천 CCC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교역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6일에는 모든 참가교회와 대학생전도요원이 함께 모여 발대식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회는 김재복목사, 권기호목사(시민장로교회)의 대표기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임택창목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취지 설명과 인사에 이학규장로(사무총장), 오리엔테이션에 정경호목사

(CCC), 합심기도 인도에 신성훈목사(열린교회), 격려사 및 축도에 김주환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영광 무장을 철거한 한 대학생전도요원들은 한 교회 10-12명의 한 팀을 이루어 주,야간으로 복음을 전하여 총1260명에게 사명서를 읽어주었으며 그 중 약485명이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3만5천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조은제장로(베드로전교센타)가 전도지 5만부를 제공하여 유용하게 사용했으며 교회를 이진하여 처음으로 성시도시전도에 참가한 남춘천그리스도교회 박종식 목사는 "이번 대학생전도사역을 통해 교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주일학교가 생겼으며 전도대상지역 70여 가구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3명의 지역주민이 직접 교회를 찾아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사역을 통해 무엇보다 춘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과 또한 대학생들

이 한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현장에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며 전도한 영

혼들을 교회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참가교회 및 사역 결과는 다음과 같다.

NO	교 회	담임교역자	팀순장	인원	합 계			비 고
					4명령 전한수	4명령 영접수	전 단	
1	사남성교회	최상도 목사	임택창	10	28	9	3200	익산
2	갈릴리교회	최영조 목사	천한필	8	126	76	3330	수원
3	열린교회	신성훈 목사	박재성	23	161	52	1750	부산②
4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	손성준	12	131	77	4417	서울중앙
5	강남온누리교회	김원준 목사	남상진	10	54	31	900	부산③
6	남산성교회	김원준 목사	박진광	11	89	12	350	춘천①
7	시민장로교회	권기호 목사	홍은정	12	102	54	1230	부산④
8	남춘천그리스도교회	박종식 목사	박종식	11	67	17	3950	춘천②
9	석사감리교회	임택창 목사	김현태	10	134	41	2555	춘천③
10	강원침례교회	차덕수 목사	민경덕	11	121	20	5561	춘천④
11	본 부1		유형진	12	64	21	3520	서울북동
12	본 부2		구병준	13	99	45	2541	평안
13	본 부3		박 칸	8	84	30	2100	
14	간 사		정경호	6				
교회11, 본부3				14명	159	1,260	485	35,404

장로교 춘천지역 연합회 임원 개선 - 제6차 정기총회 춘천중앙장로교회에서 -

한국 장로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박상호목사)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춘천중앙장로교회에서 1백여 교회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정 및 사업보고에 이어 임원을 선출했다.

동연합회는 정기사업으로 장로교주일 연합회, 연합부흥성회, 제육대회, 노인복지 및 군교의 건축을 위한 바자회,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사업으로 장로교수협 제4차 춘천성시화전도대회로 교회의 발 주한 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 사동경 목사(중앙교회) / 부회장 김유식 목사(한신교회) / 김광국 목사(성광교회) / 이순주 목사(일성교회) / 김정성 목사(사우동교회) / 권기호 목사(시민교회) / 김홍규 장로(동부교회) / 황병호 장로(제일교회) / 최우성 장로(한빛교회) / 최우도 목사(천진교회) / 부총무 지용환 목사(은혜교회) / 협동총무 조동욱 목사(광명교회) / 김순재 목사(남춘천제일교회) / 김지용 목사(고동교회) / 김승권 목사(봉내교회) / 문종식 목사(화목교회) / 최준배 목사(경강교회) / 송광호 목사(남춘천제일교회) / 서기 김덕용 목사(중부교회) / 부서기 김종익 목사(광명교회) / 회계 안한수 장로(서성교회) / 부회계 강동구 장로(동부교회)



제5대회장 박상호 목사 (제일장로교회 담임)



제6대회장 사동경 목사 (중앙장로교회 담임)



총회개회식 모습

통일염원 강원도민 남북한 사랑있기 사랑의 모금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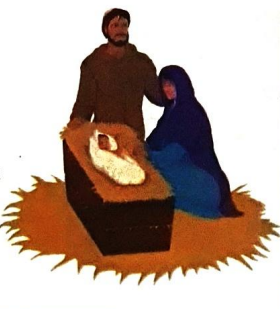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하루에도 단지 먹지 못해 5만 여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0~60년대 밥 한끼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 그때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 마추라는 식탁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한 아이라도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모금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뜻이 있는 분이라면 꼭 참석해서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 일시: 2001년 7월 19일(목) 오후 7시
- ♥ 장소: 두산리조트 다이아몬드홀
1부-기념식 / 2부-만찬
- ♥ 주최: 강원도민일보, 월드비전강원지부
- ♥ 후원: 월드비전춘천지회, 춘천홀리클럽, 두산리조트

TEL.(033) 254-7244 FAX.(033) 251-1164 월드비전 강원지부



이 세상 모든 것을 스캔하자 최강의 이미지를 찾아주는 서비스 아이콘리스트닷컴

★ 춘천의 크리스찬 벤처기업 (주)소프트PD(대표 韓相一)는 인터넷상의 무료 이미지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아이콘리스트 시스템(www.IconList.com)을 개발 하였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이미지 구분을 상세하게 지정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빠른 시간내에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 현재 56,000여건의 자료와 교회관련 주부클럽아트, 사진이 이미지의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이미지 추가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을 수익 모델로 전환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자체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회원도 카테고리 검색이 가능하여 회원은 무료회원제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 검색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미지수집소 이미지등록 알림 메일링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었고 회원 커뮤니티도 강화 하였습니다. 검색방법을 주계, 설명, 등록자, 등록일 등으로 구분하여 찾아주며 세밀하게 검색할 수 있고, 야후와 같은 카테고리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콘리스트는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의 10%만만 아니라 모든 수익의 10%는 선교에 반드시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북한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예향(www.ye-hyang.net)선교회를 통해 선교 및 구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영혼구원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주신대로 나눠 주는 것이 저희 회사의 선교비전입니다.

200-906 춘천시 후천2동 682-5 3/3 (주)소프트PD 대표이사 전상일 TEL.(033)241-3495 FAX.(033)241-3496 H.P.018-462-0820 E-mail:sahon@softpd.com / (주)소프트PD는 알뜰한 컴퓨터 제작과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 인터넷 콘텐츠 개발, 기업메커니즘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서비스 등 다양한(ASP)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 묘안은 없는가

교회성장 발전에는 기발하거나 특출한 묘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틀린 단언이 아니다. 혹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성경에는 가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한 모든 것을 가로지라 지키게 하라고 구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의 부흥이란 말에 양적인 증가를 뜻한 다면 성령이 친적인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교회는 아직도 오늘날도 진도하고 내일로 진도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진도 방법은 거의가 퇴행 또는 퇴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 진도 방법의 일면을 보면 "예수신앙 불신자회"이란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최권능 목사의 전도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천만 원 지폐에 "예수님으로 천국 얻으면 지옥"이라고 붉은색 고무인물 찍

어 진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진도방법이 묘안이며 효과적인 진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세사업과 신생활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미국에는 교회내에 안공호수, 대항식당, 커피하우스, 암바타, 비디오 상영, 농구장, 수영장, 플러스 케이트장 등 각종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추고 은퇴자를 위한 안고원, 독신자클럽, 음악레슨, 자동차장비클럽 등 인간 주변을 위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2만명 이상이 모이는 일명 메가교회(Mega Church)가 늘고 있다.

진정한 교회의 성장하려면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가므로 인해 칭찬을 받을 때에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이 곧 유일한 교회 성장의 묘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신앙상 승배 이단사절 대책 시급하다

우리 지역에는 교인 수 1천명 이상을 자랑하는 교회가 10여개 있고 크고 작은 연합회가 많이 있다. 강원도기독교연합회, 춘천기독교연합회, 교역자연합회, 장로연합회, 직장선교연합회, 교경협의회, 춘천성서화운동본부 이밖에 도소를 연합체들이 있다.

이들 중에 어떤 기관에서도 미신앙상 승배와 이단에 대한 연구,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춘천 지역의 몇개 학교교경 및 도로변에 단군상상이 설치되었을 때 어느 군종교의 목사가 전언으로 단군상 설치에 대한 대책 기원을 물어왔고 지난해 대교회 목사로부터 춘천에 있는 모 여학교 교가에 "올녀의 딸들이"라는 노래말이 있어 기독교 학생들까지 곧(올녀)의 딸로 불리지고 있다면서 단군상

대책기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춘천에는 3백여 교회와 많은 기도원, 신학원, 선교원들이 있고 이들 중에는 이단 또는 이단적인 연계를 마음대로 구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지난해 성서화를 위한 총력전에도 참가한 교회 중에 이단 교회가 있었다고 철학적 목회자도 있었고 또 사석에서 이는 이단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목사, 장로들로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연구 등 대응책을 강구하여 이단이나 이단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신 권과 권로에 참여할 것 같다.

박사 연구는 증가해도 교회의 변화에는 속수무책이다

한국교회 안에는 신학박사, 목회학박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박사학위 얻는 것은 목회학에 어려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 중에는 밤 졸려 귀찮은 박사도 있고 이글저글 못 쓴 박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목사, 장로이고 동시에 학자그룹에 속한다. 연구논문 한권으로 끝나는 박사라면 어니한 기에도 부흥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박사라는 이름에 대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맹신적인 사고로 높은 가치와 무게를 실어주는 데 있다. 오늘날 봉사를 위해 세운 교회의

직분은 이미 계급화 되었고 교회전선의 크고 웅장함, 교인수의 많고 적음은 자존심과 교만의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여기에 박사란 이름은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박사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교회에 희망을 더해 주는 일이다. 박사라면 교회생활, 신앙양생을 위해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교인들을 깨우치고 지도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속화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살피며 개혁하고 미미한 부분에서부터라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남춘천기독교교회(유인영 담임목사)는 7월 9~11일까지 한국예배스쿨 주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MEBIG(세이바)를 개최했다. 오는 7월 23일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8월 2일 회양초등학교에서 중, 고등부 수련회를 가지며 16일 부터 교정과 속초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문의: 033)244-8881

수남중앙기독교교회(김영수 담임목사) 강원도기독교연합회(회장)는 6월 25일부터 도내 시, 군 기독교연합회를 방문하고 8월 15일 개최하는 백두대간 기독교인 기도회 준비 및 북강원도 사랑의 나눔 자선기 모금 운동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수남중앙기독교교회(박성일 담임목사) 춘천CBS방송 선교매거진 진행)는 CBS의 강과업 종료 후 7월 7일 다시 진행을 시작한다.

최근 문서신교의 활발한 강행을 위해 전자종 인쇄기를 구입, 인터넷에스를 연결하여 주보를 포함한 각종 진도지와 소식지를 100% 자체 제작하고 있다.



▲ 일기를 마치고 성서신도사를 방문, 금일부를 전달하는 춘천지역 기독교교정연합회 허중구 장로, 박민정 장로, 이우식 장로 등 임원들.

흥천교계소식

○흥천서대방 장로회 연합회 인사말

기독교대한교회의 동부연의 흥천 서대방 장로회연합회(회장 이창희장로)에서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에 흥천 한시교회(담임목사: 원재호)에서 24분기 한시예배를 드리고 8.15통일기도회, 동부장제회, 평신도회, 교역자 친목회대회 등에 참석하고 결의하고 하반기에는 장로회 미조교회를 순회하며 장로회와 조교와 활성과 사업과 미자립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동부연의 연선교회 연합회 인사말

동부연의 연선교회에서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총주 제일기도원에서 동부연의 부흥선교단(단장: 장준기교회) 정종진목사)주관으로 사지방 은혜교회 문준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천년을 감리교회의 시대"라는 주제 아래 연합회를 개최했다.

○흥천신우회 정오기도회

흥천신우회(회장: 김지창 의회사무과장)는 7월 11일 12시에 흥천읍내 읍성(지남대부교회)에서 흥천제일교회 김진석 목사님을 초청 정오예배를 드리고 직장선교와 복음화, 초교파적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흥천서대방 교역자, 남신교회 목회대

흥천서대방(김지창: 양명원목사)에서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서석연 체육공원에서 사지방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교역자와 남신교회의 친목회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동부연의 중등부 연합회

동부연에서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성동 둔대 성유우호스원에서 중등부 연합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ANNA

좌절감 몰아내기

당신이 좌절을 겪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좌절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임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중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매우 긴장하고 불안했었다. 나는 달래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더 혼돈스럽고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잠시 멈추고 기도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나는 잠잠히 앉아 있었고 몇 분 후 주님께는 내 심령에 대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좌절을 겪는지는 이것이? 그것은 우리가 비관하기 기꺼워하는 대로 우리 삶이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삶에서 직면하는 것들을 다 이시어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은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 조이스 마이애니*채수덕〉

◆유고슬라비아, 북음주의 교회에 테러

유고슬라비아는 정교회와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 소수 종파에 속하는 것으로 최근 북음주의 교회에 대한 공격이나 테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내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거나 불을 던지고, 교인들에게는 "사교단내에 속한 자들"이라며 폭력을 퍼붓는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은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실제적 경험적 조차도 북음주의 기독교와 불교, 여호와의 증인, 신단 순배자들이 치이를 제대로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실제적인 예로 경찰들의 종교와 관련된 상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로 사용하는 "종교적 사고감각"이란 책을 보면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북음주의 기독교와 이단

사교들을 얼마나 혼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안 루코비치는 유고슬라비아 내에서는 지명된 종교교자로 대접받고 있으며 경찰장국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며 종교관련 입수행에 적용하고 있다. 조안 루코비치는 대종교연합을 통해서도 침묵과 오순절 등 주요 북음주의적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지 소식들은 최근의 반개신교적 정서의 배후에는 개신교가 부흥할 경우 기독교를 배척할 것을 우려하는 정교회와 정교회로 우익노선을 견고한 자들의 불미지 않는 조종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르비아의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매체에는 북음주의적 교회에 대해 실화한 비관하는 논조의 논평자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으며, 북음주의적 교회들은 정규 예배 이외의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교회를 건축

감리교 남선교회 105년사 발간



이 기 종로 (원주선교회)

기독교대한교회의 남선교회 (男 宣教會) 105년 사가 발간되었다.

동부연의 원주선교회에서 시무하는 이기종(李起鍾) 장로가 지방회원으로 최초로 전국 남선교회 23대 회장을 맡고 임기 2년을 마무리 하면서 감리교 평신도 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국내 판 전문 10장 831쪽으로 책을 편찬하여 전국 임원들에게 배부하였다. 고향인 강원도에는 도내 대학교서관과 시립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등에 배포하여 감리교 선교 역사와 평신도 운동이 개회 이래 기여한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전을 결하여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래는 1885년 아펜젤러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의 미국으로 시작하여 1897년부터 "렘랴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청년 개화운동이 시작된 역사와 당시의 사진들은 아주 소

중한 자료이며 가장 최근의 감리교 통계 수를 취하여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기종 장로는 2년 동안 자료수집은 물론 남선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국에 감리교 남선교회 연합회를 창립하였고 감리교가 남북양에 교회를 봉헌하고 세계 남선교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임기 중 전국의 24교회를 순방하여 예배를 드리는 등 개인 생활을 뛰어넘어 교회 선교활동에 전념하였다. 현재 원주 사회복지법인 서강원(瑞康園) 이사장이며 감리교본부 감사, 기독교선교인교회 창립회장을 역임한 강원도 감리교회의 중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인 황중화 권사와 2남1녀를 두고 있다. ☎ 033)734-6745



[마거]

회갑맞은 남선교회원들 전교인 초청잔치

춘천중앙교회 남선교회 제5회 회원 7명은 1941년 생으로 금년에 회갑을 맞았으며 모두가 장로라는 인연으로 3년 전부터 뜻을 모아 선교 봉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새생명 일당과 봉헌의 해(모)로 초로(初老)의 정열을 쏟아 더욱 열심히 일하며 성도에 대해 모범신앙자세를 보여주고 다짐하면서 7월 15일 주일날 예배시간 후 교회식당에서

전교인 초청 잔치를 베풀었으며 1천여 명의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을 했다. 회갑잔치의 모든 경비는 회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일체의 축의금도 받지 않았다. 이들은 3년 동안 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부부동반하여 성지순례를 하면서 내조한 아내들을 위로하고 보다 깊은 신앙과 사랑을 커는 선교 사역자가 되기로 하였다. (재무: 김기태 장로)



장기호 장로, 권부근 장로, 김창수 장로, 이인수 장로, 장민기 장로, 조창부 장로, 김철배 권사

춘천 기독교연과 육군 제2218부대 자매결연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는 육군 제2218부대(군단장 황규식)와 7월 말경 자매결연을 맺고 군의 신앙 전력화 및 춘천선교회를 위하여 상부상조하고 유

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민(民), 군(軍)의 복음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장소: 춘천동부장로교회

(정오예배 100회 감사예배)

일시: 7월 31일 화요일 12:00(예배)~12:35(식사)

설교: 임인영 목사(춘천동부장로교회) 사회&안내: 춘천경찰서장장교회 기도&특송: 춘천교도소직장선교회

일시: 8월 31일 화요일 12:00(예배)~12:35(식사)

설교: 유인영 목사(남춘천기독교교회) 사회&안내: 춘천교육대학교직장선교회 기도&특송: 조흥은행직장선교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연합회 정오예배위원회 직상송(033)250-7110 직장선교연합회 회비납입 조흥은행 515-02-008378 예금주: 정철교

*** WORLD ***

◆인도 힌두교 군중, 고아 선교센터 반대 시위

인도에서 고아들을 위한 선교기관을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힌두교 군중들이 선교센터 주변을 에워싸고 심한 소란을 일으키며 선교기관을 파괴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Hope gives International)" 선교단체는 해외로 팔려가거나 매춘조직에 넘겨지는 고아들을 구출해서 수용하는 곳으로 현재 고아원을 100개 이상 운영하면서 인도 어린이들, 특히 고아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 기관의 책임자 토마스 선교사에게 대해 생

명에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에 제1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인도에 남아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아들 사무엘이 보낸 편지에 의하면 연일 5천명이 넘는 힌두교 군중이 라자스탄주의 코다시타에 있는 건물 주변에 몰려와 현재 이 기관이 운영하는 고아원을 폐쇄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토마스 선교사의 인권을 만들어 최형식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군중들이 이처럼 흥분하는 이유는 고아원에 수용된 고아들이 복음을 듣고 대부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점과 그 중 상당수가 양질의 교육을 통해 목사, 선교사, 의료선교사 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6·25 춘천대첩 51주년 기념 민관군 연합기도 드려

- 춘천 사수병사들의 살신성인과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
- 서울탈환 3일 지연 역사적 의미 커, 성시화 물결 전국 도시로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와 2군단(최규식 군단장)은 합동으로 6월 24일 오후 3시 순복음춘천교회 만천상전에서 민관군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김주환 목사의 사죄로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설교, 2군단 군종참모 서용오 목사 대표기도, 성경봉독 최원목 목사(남춘천침례교회), 특별기도 사동경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허봉구 장로(장로연합회장), 김명본 목사(장대감리교회), 천금기도 피조복 목사(나눔성결교회), 동부장로교회 성가대 찬양, 2군

단 직할부대 군종행사 특별찬송, 배계성 춘천시장 인사, 임태창 목사(성시화본부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주환 장로(전 사단장)의 신앙간증은 6.25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우쳐 주었고 복귀침략군의 수도 서울 탈환을 3일간 지연시킨 춘천 소양강 전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고 6시간 병사들의 살신성인을 애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기도에 우리 역사의 전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맹영을 장로(평명장로교회) (노장권 담임목사) 본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장로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임원개선

허봉구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장은 지난 6월 27일 오후 5시 서부감리교회에서 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및 임원을 개선했으며 회칙을 개정했다. 임원 개정은 2년의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부회장을 7인으로 보강하였으며 회계연도를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0일까지로 했다.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회장 박승택 장로(서부감리교회) / 부회장 한주식 장로(광장감리교회) 황병호 장로(제일장로교회) 박한평 장로(중앙성결교회) 김기선 장로(성광장로교회) 이성용 장로(소양강성결교회) 임영일 장로(춘천침례교회) 임운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 / 총무 이우식 장로(석사감리교회) / 감사 김동영 장로(평화감리교회)

Promise Keepers 운동 전개

2군단 군종 참모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의 'Promise Keepers(PK)'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춘천 집회는 오는 8월 11일부터 4일 중에 가릴 예정이다. PK는 남성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복음 운동으로 신앙을 통한 남성의 도덕적 회

복, 행복한 가정 회복, 낙태 반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김의현 목사(자문위원회 이사장), 김장현 목사, 김상복 목사, 김삼환 목사 등이 앞장서고 있다.

간사님 밥맛이 좋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진다. 의욕도 약해지고 입맛을 잃게 되면 한끼를 밥 없이 고추장을 고추장에 찍어 간신히 한끼를 때우기도 한다. 이 여름철에 유난히 맛있는 밥을 먹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한 도전전대대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순장의 권유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의 현장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다. 4월5일 동안 홍천에서 훈련받고 지친 상태로 춘천에 와서 우렁찬 노래, 거두리, 강연대 강론과 후문, 명동을 비롯한 주요 거점마다 다니며 4명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대학생 전도대원들에게 밥맛이 어떠하냐 물어보니 "간사님 밥 맛 좋습니다!" 대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그래, 이 밥은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다. 그래서 특히 맛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대답을 하였다. 복음 전한 후 기뻐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대학생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한국교회의 희망한 미래를 내다보는 기쁨이 내게 있었다.

도시전도에 이어 대학생 30명을 전도해준데도 파송하였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회수하고 단지 성경책과 전도용 4명리책자와 전도지를 손에 쥐어 주고 무작정 내보냈다. 아무도 금한 일이 없이도 연락하지 말 것, 자체에서 기도하므로 모두 해결할 것을 지침으로 주었다. 처음에는 자제 태도 30-40분 이동하여 춘천 외곽에 내려주었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전하고 그 집에서 밥을 얻어 먹고 밤 10시까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숙소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한 팀은 감자를 갈아서 주었다. 감자를 케고 있는 농부에게 3시간 감자 캐는 일을 도와주

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아저씨가 고마워하면서 감자를 한 자루나 주고 자기 차로 다음 마을까지 태워주었다는 것이다. 주는 대로 얻어 먹고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마다 복음 전하고 정말 신나는 순례전도를 경험하였다. 거북한 거지가 되어 얻어 먹은 오이냉국, 라면, 식은 밥에 콩나물국... 그 맛은 어떤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밥상이었다. 우리 모두 평생한 식욕을 회복하자.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많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고전4: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야 한다(딤후4:2). 지혜있는 자는 금주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좋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단12:3). 많은 사람을 좋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가 주종이 사냥이 있다. 첫째는 모기를 쫓아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우리는 침침 모



점경호 목사 / (춘천CCC대학생선교회 대표)



레크리에이션

신앙생활과 여가활동



정진환 장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장)

성서는 "평상 기뻐하라" "복사에 감사하라"고 영과 육과 정신건강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미 2천년 전에도 기쁨이 있으면 복사에 감사 할 수 있음을 제시 하신 것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종교 활동을 사람들 사귀거나 즐기 위해 한다. 따라서 종교 활동이 가장 중요한 여가 활동인 사람도 있다(Bammel bemmel, 1996).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는 사람도 있다.

종교 활동이 여가 혹은 일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그 자체를 여가 차원에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종교 활동이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조용히 어머니의 모습을 곁눈질 하면서 기도 할 때 끝나기만을 기다리다 잠들어 버리면 어느새 예배는 끝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선 하복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기억이 난다.

6.25 사면 이후에 폐허가 된 학교의 가건물에서 중학교 3학년 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 당시 미국 미스 모아(Miss Mear)여선교사의 순례관 여행국, 그만한 교회들을 관심있게 보았고, 성탄절 때마다 성극에 참여 하면서 배우의 꿈도 꾸었던 적이 있었다. 대학시절에는 인형극도 만들어 각본, 녹음, 연출 등에 심취해 본 적도 있었다.

당시 교회 사죄 학교 보다 시청각 교육, 여가 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이 훨씬 앞서 있었다. 필자의 지금의 생활은 이미 어떤 시청각학교에서부터 뿌리가 나기 시작한다 보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는 마치 드라마를 연기하듯 신나게 강의를 한 것도, 친구들 사이에 모나지 않는 인

간성을 보인 것도, 뒤늦게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봉사하게 된 것도 모두가 어려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다듬어진 여가 생활의 영향이라고 생각 된다.

크리스마스나 같은 기독교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축제로 자리잡아 모든 사람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은 조금의 웃음 여유조차도 없어 인간 간의 친교도 없어진지 오래된 것 같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가 활동은 하나의 사치로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가 형태가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 왔음에도 시대적 변화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크리스마스나 등의 여가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 하면서 목회자들과 교회의 늘어남 가는 노인층의 문제, 줄어남 가는 청장년, 그리고 주일에도 학교 과외수업 때문에 출석율이 저조한 유년부, 초, 중 고생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금의 교회학교는 모든 시청각 시설, 여가시설,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의 질은 국립대학교를 따를 수가 없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 할 수 없다는 진리가 생각 난다. 교회 학교도 이제 종교적인 질리만으로는 아이들을 끌어 당길 수가 없다.

그들의 세계, 그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한 무엇인지에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들도 알아야 한다. 세대의 간격은 급하게 넓어 가는 데... 우선 목회자들이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신앙적인 문제 외에 신도들의 여가문제는 별개의 개인 문제로만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에는 "평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이 보실 때 사랑받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 필자소개

전 화천중 실업고등학교 교장, 강원도교육청 중등 장학관, 강원도인재교육청 현 사단법인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장(2급지도자),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강원도청소년성실교육위원, 청소년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사단법인한국아미추어선명춘천사무소운영위원, 춘천중앙감리교회 장로

나도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연수

현대생활을 여가 사회라고 합니다. 일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 사회와는 삶의 방식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모당, 일찍이 공민에서 최후한 지는 노인들을 위한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대상에게 활짝 웃음을 터뜨리며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유익한, 화기, 종교단체, 각종 복지시설, 관공서, 기업체 등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필요한 것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본 협회에서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7년여에 걸쳐 춘천에서 2급 지도자격을 얻을 수 있는 연수를 현재 교사들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많은 대학생들과 일반인, 종교계 여러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나라 너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참여 하십시오. 자격증 획득에 도전해 보십시오.

- 연수기간: 사단법인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본부설립
- 연수명칭: 특수분야 일반연수
- 일 시: 2001년 7월 23일(월) ~ 28일(월) ※ 공휴일 제외 63시간
- 참가자격: 도교육청에서 지명된 교원 및 대학생 & 일반인
- 장 소: 한림대학교 체육관(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내)
- 등록절차 및 경비
 - 연수회비 - 일반 23만원 / 교회학교 교사 및 대학생 15만원
 - 회비입금 - 조흥은행 711-04-132009 예금주:정진환
 - 신청서제출-전파 또는 팩스신청(033)256-9681/팩스(033)253-5533
- 신청서식

직장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단법인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장 정진환

200-954 춘천시 효자1동 685 685 춘천지부사무소 0333256-9681 FAX:033253-5533

EBS 영상독서실 춘천점

EBS영상독서실이 춘천에 왔습니다

- 우리 독서실의 특징 -

- EBS와의 계약을 통한 EBS시청각실 운영
- 전 과목 MC스캐어 설치
- 인터넷 정보 검색실
- 영격한 학생관리 시스템(입퇴실 전산화/ CCTV)
- 카페풍의 휴게실 운영
- N세대 개념의 쾌적하고 세련된 최고급 인테리어
- 귀가시 안전한 차량운행

교육상담 및 접수 033)243-7288 대표 청취용 접수

농협 강남동지점 뒤(농동목) 삼이군경회관 건물 4F / 춘천시 강남동 515-1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베드로선교센터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 조준재 장로 - 신경정신과 전문의 기형희 권사

춘천시 효자2동 312-1번지 베드로병원(법원 옆) TEL.033)253-5171

☆극품 예술전문점☆

솔로몬

대표 이덕재 이사 조순옥집사

춘천시도파복합체 1층 솔로몬극품점 ☎ 033)243-1423 / 243-3634

알로에는 자연입니다

알로에마임

대표 이관호 이사 운영집사

춘천시 효자3동 756-3번지 보현초등학교내 TEL.033)242-2660-6

민음과 기도로 치료하는

영광한의의원

원장 이윤규 장로

춘천시 후평2동 801-2번지 TEL.033)251-2003-4

주식회사 유성

"성령의 불길로 춘천을 인도하소서"

대표이사 신 종 안수집사(춘천CBS초년선교회) 단장 춘천물리클럽(총무)

춘천시 석사동 693-3번지 유성정점 TEL.033)261-6661/262-6662